

# 길림성 마약퇴치 선전의 달 가동식 연길서

5월 31일 오전, 중국마약퇴치기금회와 길림성마약퇴치판공실, 연변조선족자치주마약퇴치위원회, 무한국(중국)유한회사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길림 마약퇴치 선전의 달 및 마약퇴치 공익도보 활동이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가동됐다.



이날 연길시공안국 국장이며 연길시 마약퇴치위원회의 주임인 문경준이 가동식에 참석했다. 마약퇴치위원회 각 구성원 단위로

사회구역 간부, 공안경찰, 기업 종업원, 학생으로 구성된 5개 대표팀의 포함 1,000여명이 활동에 참가했다.

가동식에서 양국문이 이번 활동의 주제인 '마약 정신류 약품의 람용을 방지하고 우리 함께 건강을 지키자'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길림의 마약퇴치 사업은 여전히 중요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으며 마약퇴치 투쟁은 여전히 임무가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이다. 멀게는 명석하게 인식해야 한다. 올바르게 마약중독자(戒毒人员)들을 대하고 마약퇴치의 사회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구역의 마약퇴치와 재활 사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 마약중독자들이 곤란을 극복하고 마약을 끊으며 개과전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우리 함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진존의와 형력이 선후로 연설하고 무한국 자원봉사자 대표들이 마약퇴치 선언서를 낭독했다.

활동 현장의 분위기는 자못 열렬했다. 활동에 참가한 인원들은 마약퇴치 전시판을 둘러보면서 마약의 종류, 위해 및 최근 몇년간의 마약퇴치 사업 성과를 상세히 료해하고 서명 전시판에 '마약을 멀리하자'는 약속을 적었다.

현장의 인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마약퇴치 관련 지식을 깊이 학습하고 각종 마약을 료해하면서 마약 식별, 마약 방지, 마약 거부 의식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금후 마약 거부의 실천자와 마약퇴치 지식의 선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다.

/ 정현관기자



# 방대그룹 올해도 아이들에게 명절 선물 한가득



최근, 백산방대그룹당위는 '6.1'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10여명의 청년단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선후로 백산시제 18 중학교와 백산시 훈강구 흥토에진 팔방희망소학교, 훈강구 철도강진 8.1 희망소학교, 백산시조선족학교, 백산시 아동복지원을 찾아 2024년도 '6.1' 국제 아동절 애심기부 위문활동을 조직했다.

백산방대그룹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녕봉련은 가는 곳마다 여러 민족 어린이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하고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사업하

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했다.

료해에 따르면 백산방대그룹은 백산시제 18 중학교에 운동복 141벌을 기증하고 백산시 훈강구 흥토에진 팔방희망소학교에 책가방 237개를 기증했으며 훈강구 철도강진 8.1 희망소학교에 점심식사 의자 50개와 우산 110개를 기증했다. 백산시조선족학교에는 탁구판 5개와 탁구채 10개를 기증함과 동시에 민족단결진보 장학기금 1만원을 기부하고 백산시 아동복지원에는 운동복 38벌을 기부했다. / 최창남

# 74년 만에 련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올해 75세인 리금순은 항미원조전쟁에서 희생된 리근오(李根伍) 련사의 유복녀이다.

해방전 리금순의 가정은 왕청현 라자구진 사도하자촌에 거주했다. 어머니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리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고 생활은 짜지게 가난했다. 심지어 겨울이 되면 구둑에 비질을 깔고 가마니를 덮고 자기도 했다. 게다가 라자구는 토비소굴이어서 토비들의 성화에 하루도 편할 새 없었다.

1948년 10월, 리근오는 간질병을 앓는 5살 아들과 임신 4개월밖에 안되는 안해를 남겨두고 중국인민해방군에 참가했다.

해방전쟁을 거쳐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 그는 1950년 2월에 경상북도 영우(永佑) 전투에서 31세 나이로 전사했다.

아버지가 참군한 이듬해인 1949년 5월에 태어난 리금순의 손에는 아버지 련사 증장판이다.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리금순은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리움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다.

련사 후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연길 '로전사의 집' 봉사중심 당지부 서기이며 리사장인 서숙자는 지난 21일에 '로전사의 집' 로인뢰봉반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금순의



가슴 아픈 사연을 헤아려 그의 집을 찾아가 정황을 료해하고 그를 이끌고 연변혁명렬사릉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마침내 리근오렬사의 기본정황이 적힌 종이상 한장을 찾아냈다. "길림성 왕청현 사람, 1919년 10월생..." 이어 종량벽 왕청현 부분에 모셔진 련사의 이름 세글자도 찾아냈다.

"아버지가 여기에 계셨군요!" 기쁨과 서러움으로 통곡하는 리금순은 부둥켜안고 서숙자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련사릉원 사업일군들도 또 한번의 련사 유가족을 찾은 데 대해 긍지감을 느꼈다.

리금순은 이전 제사터라도 있게 되였다며 무덤 애를 써서 아버지를 찾아준 서숙자 서기에게 연신 감사를 드렸다.

/ 박철원특약기자

# 북산가두 '홍석류미니당학교' 설립

최근,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 사상과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락착하고 삼급 당위의 정신을 광범하게 선전하기 위해 연길시 북산가두 당사업위원회, 판사처의 지도하에 단진사회구역은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중점으로 '홍석류미니당학교'를 설립했다.



▲ 단진사회구역과 농업은행 당원들 학습 장면

구역을 찾아 여러 학습활동을 조직하면서 학습열풍을 일으켰다. '홍석류미니당학교'는 당사 학습을

한층 더 추진하는 토대에서 당원과 군중들을 대상으로 중대 회의 정신에 관한 강연, 민족단결 선전교육, 민족중

요정책 선전, 중화 우수 전통문화 고양 등 교육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홍석류'선전조를 구성하고 주와 시 당학교에서 경력이 오래된 교원을 초청하여 강연하게 하고 있다.

북산가두당위 진신우 서기는 "항후 단진사회구역 '홍석류미니당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체 건설과 기층치리의 유기적인 융합과 일체화 추진을 견지하고 시당위 선전부, 시당위 당학교 등 단위와 공동 건설, 련합 건설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광범한 당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증강하고 기층 당조직의 응집력을 제고하겠다."고 표했다.

북산가두 당위 부서기이며 판사처 주임인 안경식은 "여러 민족의 융합을 촉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연변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촉진하는 데 힘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리석복특약기자



# 온정 넘치는 따스한 환자의 집

액운은 눈섭 끝에서 떨어진다 했단가? 달포전인 4월 3일 오후, 바깥 선책을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연변병원 급진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히 뛰어가 보니 남편은 진통제 적적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식은땀을 철철 흘리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었다. 진정제 주사를 맞고 얼마간 진정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11시경에 남편은 또다시 모진 고통에 모대기게 되었다.

다시 찾아가던 급진과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으며 밤을 지새웠지만 병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환자는 환자대로 더 크게 신음했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화험을 한다, 피검사를 한다 하며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았으나 확실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담당에 결석이 있다는 화험 결과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고통이 생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담취장과 진료권을 떠려고 하니 급진 진료권 료금이 6원으로 적혀있었다. 이토록 중병을 앓는 환자를 진료금이 고작 6원인 새내기 의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딘가 무모한 일인 것 같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저주저하며 간담취장과 문을 열고 들어섰다. 화험 결과를 날같이 훑어보던 나젊은 의사(최빈)는 급기야 얼굴색이 흐려지면서 빨리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에 전화연계를 하면서 입원수속을 다그치고 주치의사며 주임의사들에게 환자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처음 보는 환자를 마치 자기의 친인처럼 대하는 나젊은 의사의 행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입원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서니 어느 새 주임의사며 주치의사들까지 모두 남편을 찾아주고 우리 가족을 위로하면서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그날 밤, 남편은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며 사경을 헤맸다. 이미 포치가 된 수술실로 남편을 실은 이토록 중병을 앓는 환자를 진료금이 고작 6원인 새내기 의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딘가 무모한 일인 것 같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저주저하며 간담취장과 문을 열고 들어섰다. 화험 결과를 날같이 훑어보던 나젊은 의사(최빈)는 급기야 얼굴색이 흐려지면서 빨리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에 전화연계를 하면서 입원수속을 다그치고 주치의사며 주임의사들에게 환자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담당의사인 최빈과 간담취장과 설명화 부주임의사는 수시로 환자인 남편을 찾아 상세히 병정황을 료해하고 약과 주사를 조절해주면서 마치 가족과도 같은 극진한 배려를 해주었다. 남편의 병은 하루빨리 호전되어 수술을 받은 지 7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조금만 지체했으면 환자가 더 버티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던 최빈의

사며 설명화 부주임의사를 떠올리면 남편에게 새 생명을 안겨준 그분들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또 고맙기만 하다.

남편이 퇴원하여 한달이 지나면서 최빈의사며 설명화 부주임의사를 잊을 수가 없어 우리 부부는 '고상한 의덕, 고명한 의술'이라는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들고 그분들을 찾아갔다. 그분들은 역시 가족을 대하듯 반갑게 맞아주었고 전화번호를 남겨주면서 앞으로 치료와 관련하여 문의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주저하지 말고 제때에 연계를 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잘 지켜내라고 약속했다.

생명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을 지니고 의덕과 의술을 련마하면서 무수한 환자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안겨주는 최빈의사과 설명화 부주임의사와 같은 분들은 말 그대로 환자의 가족이며 연변대학부속병원 역시 참으로 온정이 넘치는 따스한 환자의 집이다. / 환자가족 안인옥